

충북도 공연예술단체 육성사업 선정

극단 청년극장, 늘품, 시민극장, 새벽, 예술공장 두레

김수미 , 2009-06-23 오후 5:04:07



- 극단 늘품이 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한 '2009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에서 선보일 작품 '보고 싶습니다'의 한 장면.

지역 공연·예술단체의 창작 작품을 지원하는 충북도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에 극단 청년극장과 극단 늘품, 극단 시민극장, 극단 새벽, (사)예술공장 두레 등 5개 단체가 선정됐다.

23일 극단 청년극장에 따르면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천 공연예술분야 전문가 4명(연극 1, 무용 1, 음악 1, 전통예술 1)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행정 관계자, 충북예총회장, 충북민예총지회장 등 7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 심사한 결과 이들 5개 단체를 집중육성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극단 청년극장과 극단 늘품은 올해부터 3년 동안 해마다 5천만 원씩 모두 1억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된 사업비는 해마다 2편(15일 이상 공연) 이상의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3년 동안 2편 이상의 창작 초연 작품을 공연하는데 쓰인다.

극단 시민극장과 극단 새벽, (사)예술공장 두레도 창작 초연작품 등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극단 늘품은 또 문화예술위원회(중앙문예진흥기금)가 선정한 '2009찾아가는 문화순회사

업'에 선정돼 충북을 비롯한 충남, 경기, 인천, 광주, 경기 등 전국 10개 지역 11개 군부대를 찾아가 순회공연을 펼친다.

늘품은 이번 공연에 모두 4천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고지순한 여자와 주먹을 쓰지만 순정파인 남자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등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그린 연극 '보고싶습니다'를 공연한다.

공연은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동안 진행된다.

/ 김수미기자